

목어 사형제도의 찬반논란



최근 우리사회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그 논리는 사형제도 자체가 사회라는 집단을 앞세운 모하나의 살인이라는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수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참회와 징역을 통해 사회에 진 빚을 갚고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혹자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필자는 동감한다. 인간의 생명, 아니 미생물의 생명까지도 존귀한 것이며, 생명의 존엄성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부처님은 생명체를 위해서는 직업, 즉 무기 때때, 독약때때, 인신매매 등을 불교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며, 심지어는 인간의 자율과 존엄성을 규제할 수 있는 재판관이나 사형집행인 등의 직업도 좋지 않다고 하셨다.

필자는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사형제도에 반대해야 한다고 본다. 생명에 대한 찬양은 그들이 평화와 자유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실사 생명을 위해서는 임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통감하고 범죄자들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 공업중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아닌가.

가리왕은 옛날 자신의 품속으로 낚아든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독수리에게 자신의 몸을 대신 주었다. 부처님 전생담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불교도들이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예이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 언정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실사 그것이 사형수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 역시 소중한 만큼 참회와 반성을 통해 사회에 대한 재무를 해결하고 업의 윤회를 끊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도이 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기를 바란다.

차차석(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사회·언론 '자비교육학교' 돼야

불자 세상보기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중고생 1,700명과 성인 1,6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지표에 대한 의식과 실천수준을 조사해 2월 21일 발표한 결과 청소년들의 도덕성 인식과 그 실천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수를 보여주는 아주 사실적인 지표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도덕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후기-기술사회의 문화현상에서 몇 가지 거시적인 원인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동체적 가치보다는 개인주의를 확대하는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트워크 세계를 찬양하는 이들은

컴퓨터가 '가상 현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화 분절화시점 따름이다. 첨단 네트워크 기술이 가상 공동체를 마치 면직물처럼 조밀하게, 거미줄처럼 질기게 엮어낸다 하더라도, '부채자들의 연대와 결속'이 면대면(face to face)의 의사소통이 주는 비언어적 소통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둘째, 인터넷과 컴퓨터 게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화'가 즉각적이고 몰가치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도덕은 적절한 물리적 강제와 부자유가 있는 곳에 서만 작동한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충돌을 불러오는 디지털 문화는 현실의

강제와 부자유로부터 '원초적 욕망'을 배설할 수 있는 무도덕적 공간을 확장한다. 디지털 문화는 이번 조사에서 선택된 18개 항목들 중에서 특히 생명존중, 타인배려, 평등, 환경보호, 성윤리 의식에 치명적이다.

도덕지수 크게 떨어져

"권위 사회통합의 확실한 끈"

"붕괴된 도덕·가치 복구해야"

셋째, 국가 권위의 붕괴이다. 우리 사회에서 권위의 붕괴는 십 수년 전에 이른바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한 권위마저 '보수', '반개혁'으로 폄하했던 군사정권부터인 듯 싶다. 권위는 전통에 뿌리내려 있

으며,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 든든한 끈이다. 경찰, 소방수, 선생님의 권위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너그러운 양심의 처벌만 따르는 도덕적 강제가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

넷째, 가족가치의 급속한 해체다. 지난 50-60여 년 동안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즐기게 주장되어 왔다. 그것이 모든 인간 해방, 여성해방, 심지어는 자연해방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은 가족을 해체하였다. 가정 이외의 사회적 친화 공간이 없는 문화에서 가부장적 권위의 타도는 청소년들을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무도덕의 공백상태로 내몰았으며, 그들은 거기서 도덕 부채의 '도착적 쾌락'을 얻는다.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간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9시



구승희

동국대

윤리학과 교수

가르쳤다. 청소년들은 인과응보라고

반박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군인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며, 권력은 정당한 권위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어른은 전통을 연결하는 헤르메스(Hermes)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와 언론이 '자비'를 가르치는 거대한 학교'가 될 때 가능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군불교 발전방향

전인구(국군불교총신도회 사무총장)



2000년 2월 25일, 기존의 군불교 신도조직을 연합한 전군차원의 국군불교총신도회(이하 군불교신도회)가 창립 이후 각 부대별 신도회 운영기준을 마련했으며 신도회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등 작지않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불교신도회 활동에 대한 군불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고, 각 제대별 신도회장 등 소임을 맡은 간부분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군불교신도회 본부와 예하 신도회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군불교신도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당 중심의 신명활동

군법사·간부·군중병 긴밀

을 활성화하고, 장병과 군법사를 연결하는 군불교 전문가 육성, 군중병의 불교소양교육 강화, 신도조직과 관리의 전산화, 예비역 법사 활동 지원 등의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과 교무교보 보시와 운영 등의 기본적인 여건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전출인이 잦은 간부분자들에게 대한 신도관리의 체계화와 불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교무교보 보시 및 관리는 군불교신도회의 역점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같은 개선노력과 함께 군불자들의 신명자세 변화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불자들이 지금까지의 개인신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팔파해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대승적 차원의 신명활동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군법사와 간부분자, 군중병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군불교 발전을 위한 절대명제가 될 것이다.

강대현(3사관학교 군법사)



2년 3개월에 걸쳐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통해 입대한 장병 7천여명을 조사한 종교현황과 국방부 군종감실에서 조사한 종교현황에 따르면 군불교 현실은 매우 참혹하다.

입대자들의 종교는 불교 20%, 개신교 33%, 천주교 9%, 무종교 38%로 나타났다. 종교인만을 분석했을 경우 개신교가 절반이 넘는 53%, 불교가 33%, 천주교가 14%로 개신교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입대 당시의 종교인 분포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 개신교의 압도적인 증가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같은 부대 장병들의 종교를 조사한 결과 불교 26%, 개신교 62%, 천주교 12%로 나타났다.

수계운동 대대적으로 펼쳐야

개신교는 2000년 75%의 국민이 개신교를 갖게 하자는 비전 2020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대를 중점적인 선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1천여 군교회에 대해 년1회 이상 군부대 교회를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편지·책자 선물을 우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선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불교는 속수무책이다. 군법당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 자체적으로 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원사단급 이하 부대에는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후원만으로 군불교가 활성화될 수는 없다. 법불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인은 대대적인 군불사 수계운동을 제안 한다. 수계는 불자로 살겠다는 사원이며 발원이다. 현재 군불자들의 수계현황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계비용이 높아질때 불자들의 신념화, 내면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김대현(25사단 군법사)



1999년 군승으로 입관해 연대법당의 법사로 보직을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내무반을 방문해보니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성경과 찬송가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불교서적이나 책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때 생각한 방법이 주보이다. 매주 주보를 만들때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종교방에 들어가보니 4백여 편의 종교칼럼이 올라 있었다. 주로 목사와 신부의 글이 대부분이었고, 불교 칼럼은 겨우 6-7편에 불과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에 젊은 법사의 불교이야기 라는 칼럼을 만들어 글을 올리기로 시작했는데 독자들이 한두명씩 늘어 두달이 지나자 50여명의 회원이

젊은층 포교프로그램 개발 시급

생겨났다. 그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낯선 절에 찾아가지 못하는 젊은층이었다. 마침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그들을 군법당에 초청했다. 군법당과 인연을 맺은 회원들은 이후 3주마다 군법당을 찾아와 병사들과 시간을 나누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이제는 이들의 발원으로 사이버 도량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홈페이지 회원은 벌써 2천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지금도 군법당의 여름·겨울불교학교와 법회를 지원하고 있다. 전역 후에도 불교를 버리지 않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젊은 불자들을 군포교와 연결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자와 군법당, 현역병과 전역병을 연결하는 방편포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젊은층에 친숙해있는 인터넷포교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21세기 정보화사회, 군포교의 중요한 현안이 되리라 본다.

불자의 생각

합장인사

100명이 참여한 푼다뉴스 설문에서 합장 인사를 꼭 한다고 답한 불자는 21명인데 비해 가끔 한다고 답한 불자는 70명이었다. 합장인사를 하는 경우도 장소나 분위기



"꼭한다" 21% "어색하다" 20%

이 따라서 한다는 답(49명)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한다는 답은 24명, 스님에게만 한다는 답에는 22명이 클릭했다. 합장인사를 잘 하는 불자들도 분위기를 가린다는 예이다.

합장인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습관화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2%). 상대방이 당황할까봐 합장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답도 적지 않았고(37%) 어색해서 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였다. 일면태 기자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였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연등의 종류별 도색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연등용)

시공인연등용 전선 케이블



만월등

팔모점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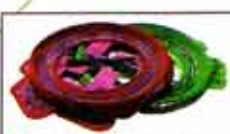


종 등 신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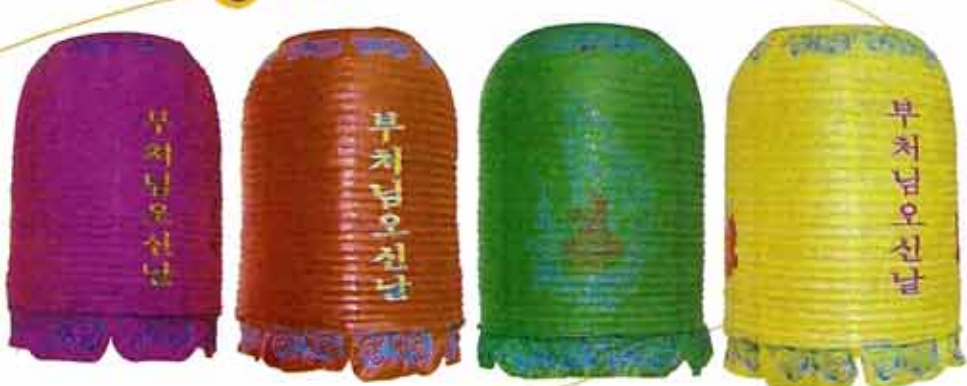
실용신안 등록 • 의장출원

• 종 소리는 지옥 중생을 구제하고 악령과 괴물을 쫓아내고 해어, 옛 사찰들은 초파일 전에 종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엔 뜻을 전하고자 관악연등제작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귀중 범패 및 행사 때 연등 장엄할 수 있는 신제품 종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종등 보관상태



◆ 한국인 제로복어 (특허 제122166호) / 조각품 실용신안 (등록 제098534호)의 의상등등 등록 보유업체 ◆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031) 792-6288, 794-4055
 찬덕 홈페이지: www.chanduk.com
 e-mail: chanduk21@hanmail.net